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의사소통 관련 변수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소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무직 상태로 인하여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서,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3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자녀의 지원, 의사소통 관련 변수에 따른 우울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은 중간 수준 이상이었으며, 특히 교육수준, 종교활동 참여정도, 주변환경에 대한 지각, 건강 상태에 따라 우울감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종교활동 참여정도, 건강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각하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 수준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결혼지위, 여성가장이 된 기간, 가족형태에 따라 자녀의 지원 수준이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였으며, 특히 교육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셋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소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평균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 후 지각하는 만족감에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평소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평균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 후 지각하는 만족감에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우울감과 생활만족도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의사소통 유형 및 관련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자원인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